

전환기 가족정책 방향 찾기

한국 가족의 다양성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목 차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3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태도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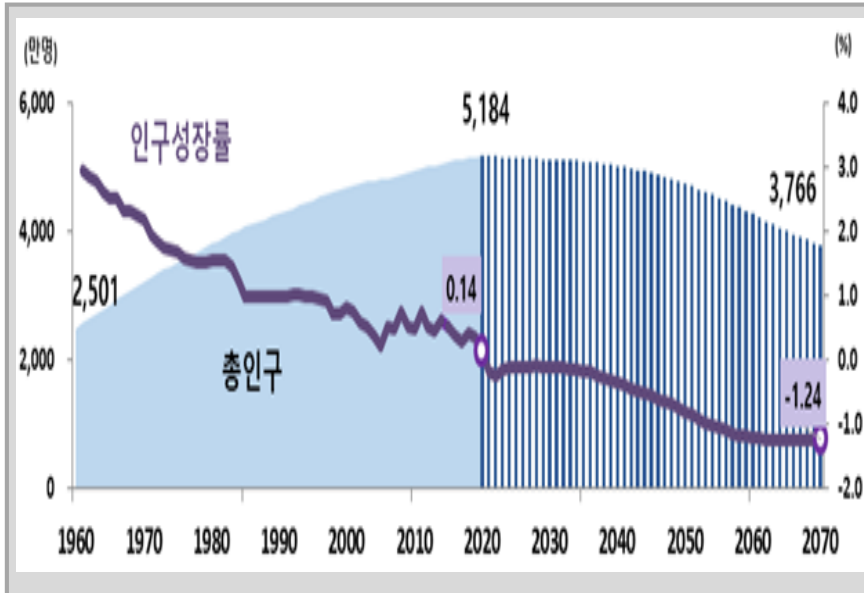
• 총인구

✓ ' 20년 기준 5,184만 명에서 감소 → ' 30년 5,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 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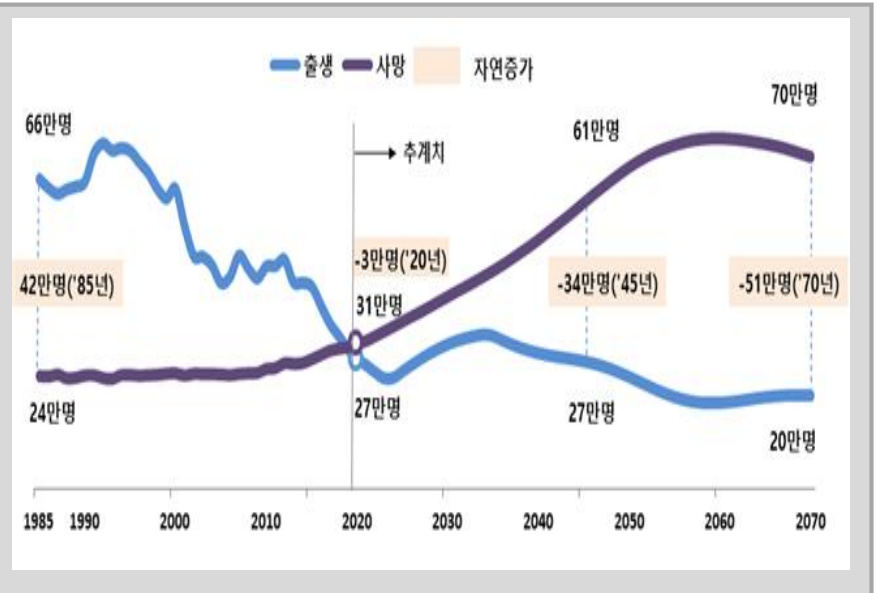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

✓ ' 21~35년까지 -0.1% 수준, ' 70년 -1.24% 수준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년)]



[출생. 사망. 자연증가(1985~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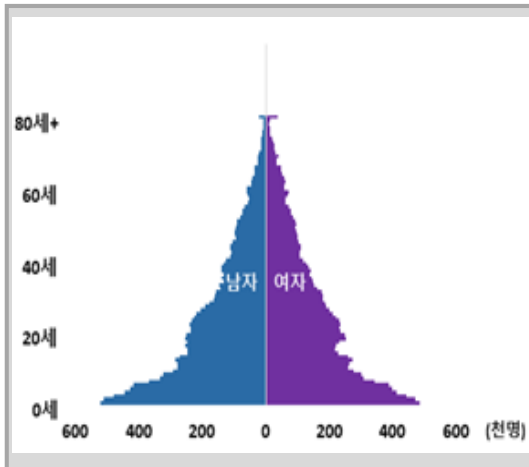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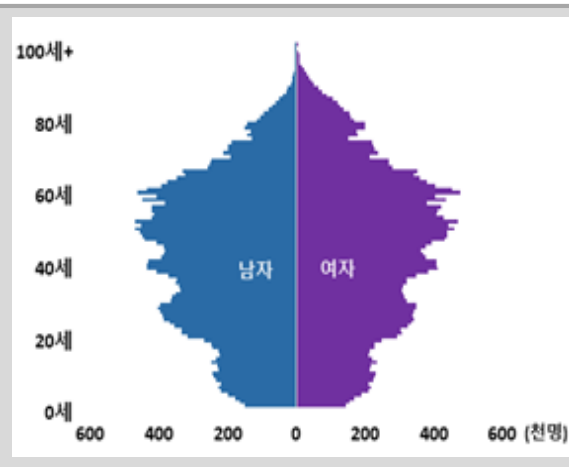
• 인구피라미드

✓ 현재는 30-50대가 많은 항아리형 →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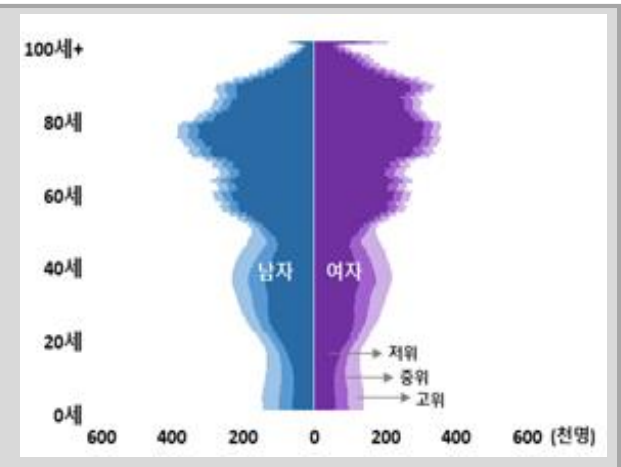
[인구 피라미드(1960)]



[인구 피라미드(2020)]



[인구 피라미드(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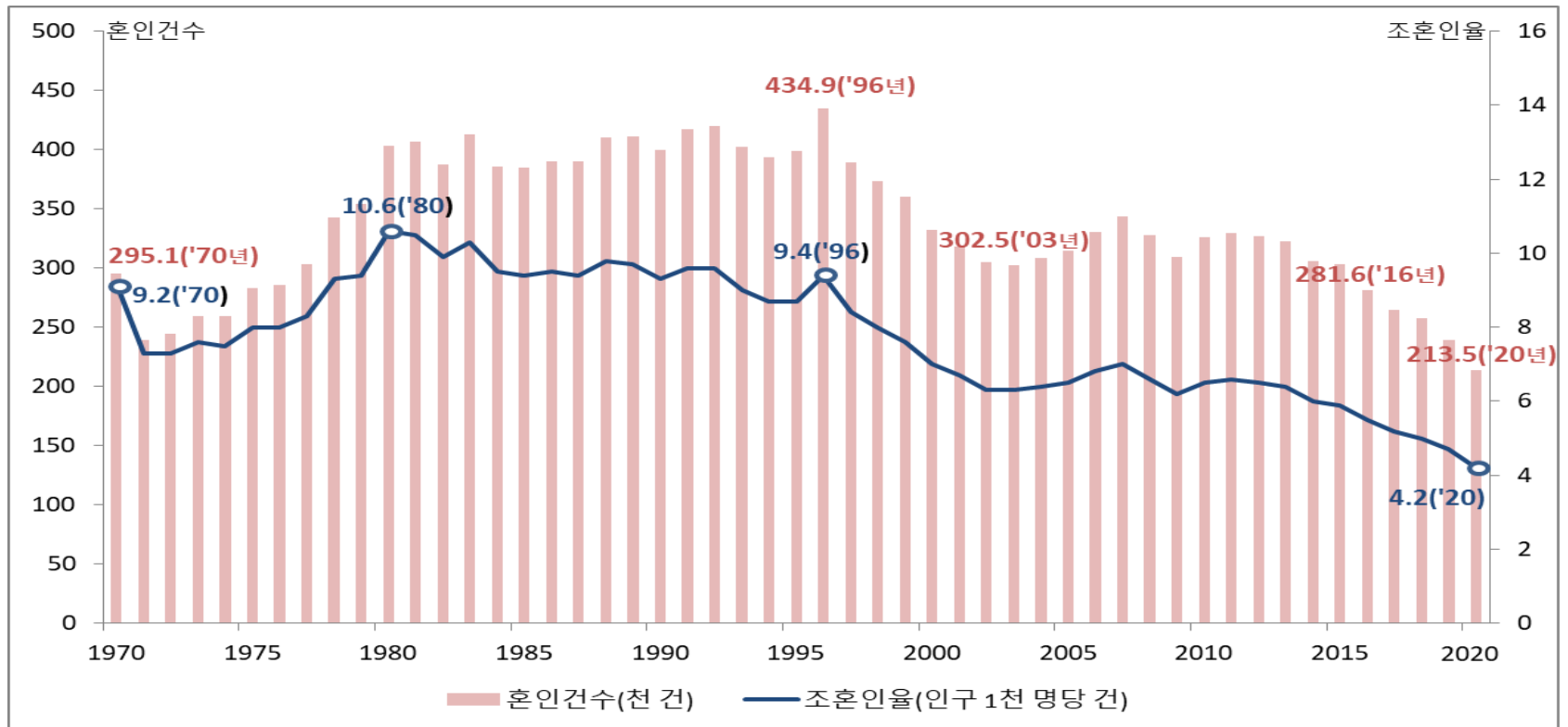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1.12.9.).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2070 보도자료.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혼인 추이

- 혼인의 감소
 - ✓ (혼인건수) ' 20년 기준 21만 4천 건
 - ✓ (조혼인율) ' 20년 기준 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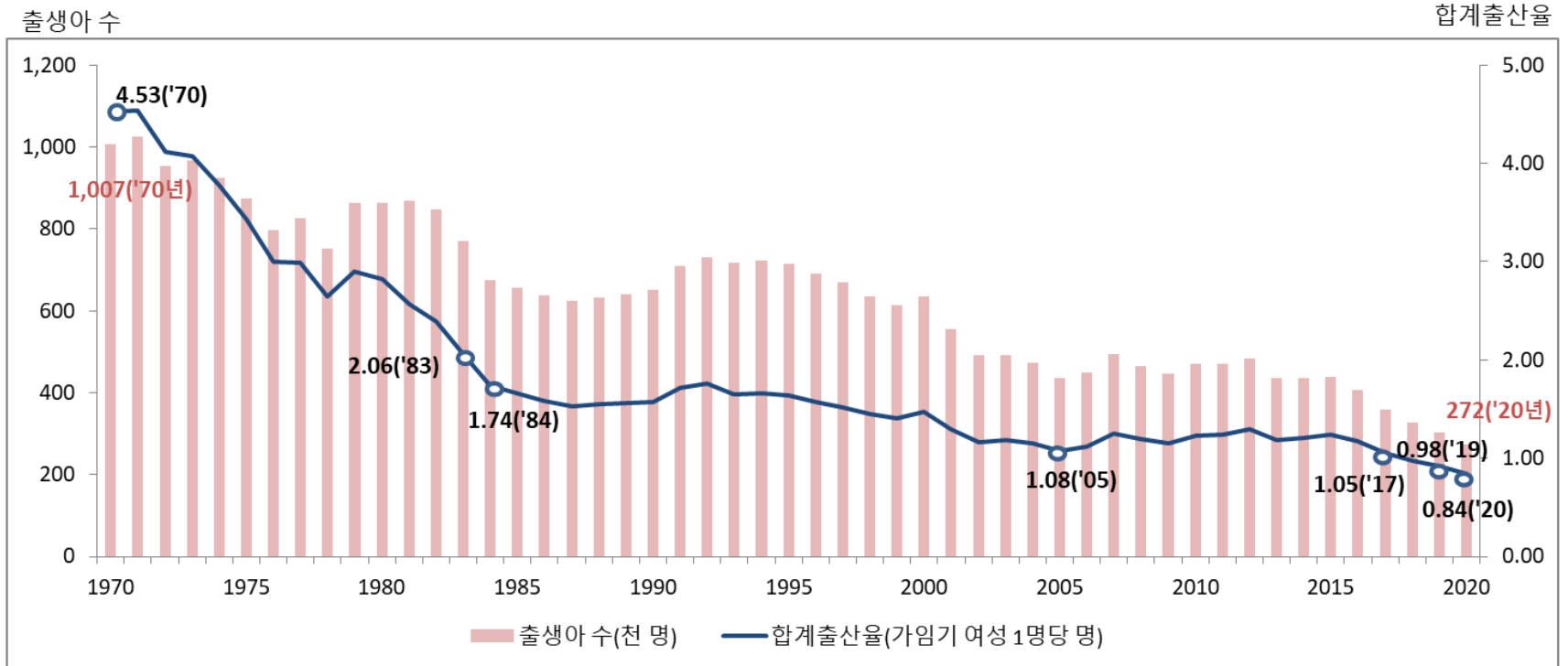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TFR) 2.1명 이하)이 1983년부터 시작되어 35년 이상 지속
-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TFR 1.3명 이하) 국가에 해당
 - ✓ (출생아수) '20년 기준 27만 2천 3백 명 → 전년대비 10.0% 감소
 - ✓ (합계출산율) '20년 기준 0.84명 →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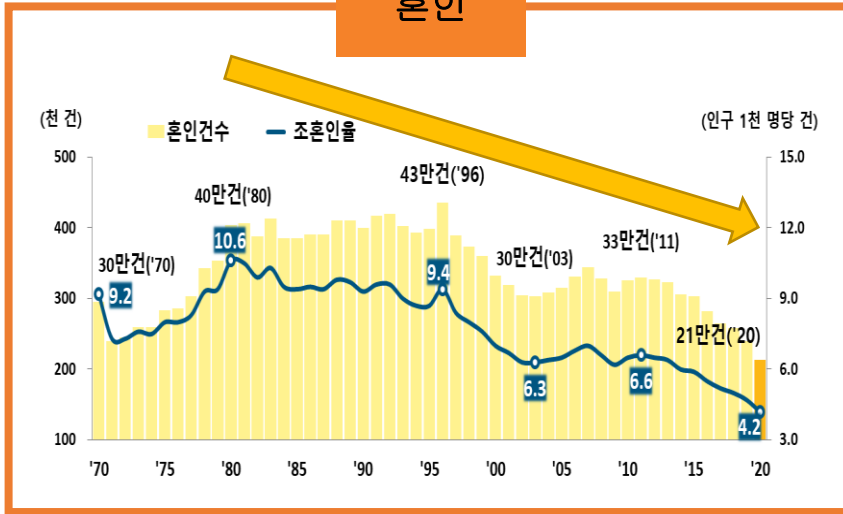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1. 혼인 및 출생과 인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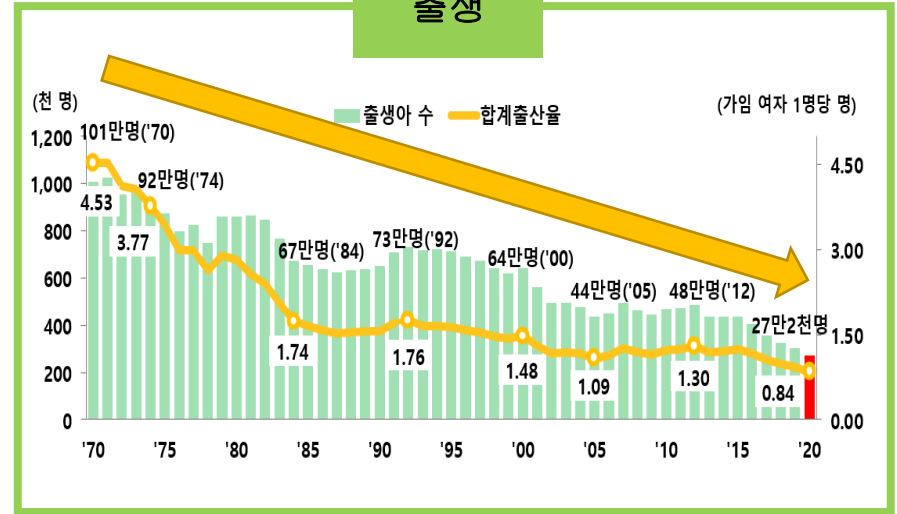
인구변동 추이의 고착

- 혼인과 출생의 우하향 그래프 고착화
- 혼인해도 출산하지 않는 경우 증가

혼인



출생



자료 : 통계청(2021.3.18.),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2021. 8. 25.) 2020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가족의 소규모화

- 혼인 및 출산을 감소 현상은 가구원수 별 비중의 변화와 가족 유형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
 - ✓ 규모 면에서 축소,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 증가, 3인 이상의 가구 비율 감소
 - ✓ 결과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단위: 천가구, %)

| | 가구수 (천 가구) | 가구원수 별 가구구성(%) | | | | | | 평균 가구원 수 |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010 | 17,339 | 23.9 | 24.3 | 21.3 | 22.5 | 6.2 | 1.8 | 2.7 |
| 2015 | 19,111 | 27.2 | 26.1 | 21.5 | 18.8 | 4.9 | 1.5 | 2.5 |
| 2016 | 19,368 | 27.9 | 26.2 | 21.4 | 18.3 | 4.8 | 1.4 | 2.5 |
| 2017 | 19,674 | 28.6 | 26.7 | 21.2 | 17.7 | 4.5 | 1.3 | 2.5 |
| 2018 | 19,979 | 29.3 | 27.3 | 21.0 | 17.0 | 4.3 | 1.2 | 2.4 |
| 2019 | 20,343 | 30.2 | 27.8 | 20.7 | 16.2 | 3.9 | 1.0 | 2.4 |
| 2020 | 20,927 | 31.7 | 28.0 | 20.1 | 15.6 | 3.6 | 0.9 | 2.3 |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한국의 2020년 가구 구성

(단위: 가구)

| | | |
|-----------|---------------------|-----------|
| 1세대 가구 | 부부 | 3,518,763 |
| | 부부+미혼 형제자매 | 19,334 |
| | 부부+기타친인척 | 4,739 |
| | 가구주+미혼 형제자매 | 219,314 |
| | 가구주+기타친인척 | 20,118 |
| | 기타 | 111,167 |
| 2세대 가구 | 부부+미혼 자녀 | 6,086,287 |
| | 부+미혼 자녀 | 506,649 |
| | 모+미혼 자녀 | 1,529,784 |
| | 부부+양친 | 16,523 |
| | 부부+한부모 | 109,222 |
| | 부부+미혼 자녀+부부 미혼 형제자매 | 58,355 |
| | 조부모+미혼손자녀 | 46,688 |
| |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 71,017 |
| | 기타 | 777,005 |
| 3세대 가구 | 부부+미혼 자녀+양친 | 76,825 |
| | 부부+미혼 자녀+부친 | 60,991 |
| | 부부+미혼 자녀+모친 | 281,848 |
| | 기타 | 339,884 |
| 4세대이상 가구 | | 5,384 |
| 1인가구 | | 6,643,354 |
| 비친족가구 | | 423,4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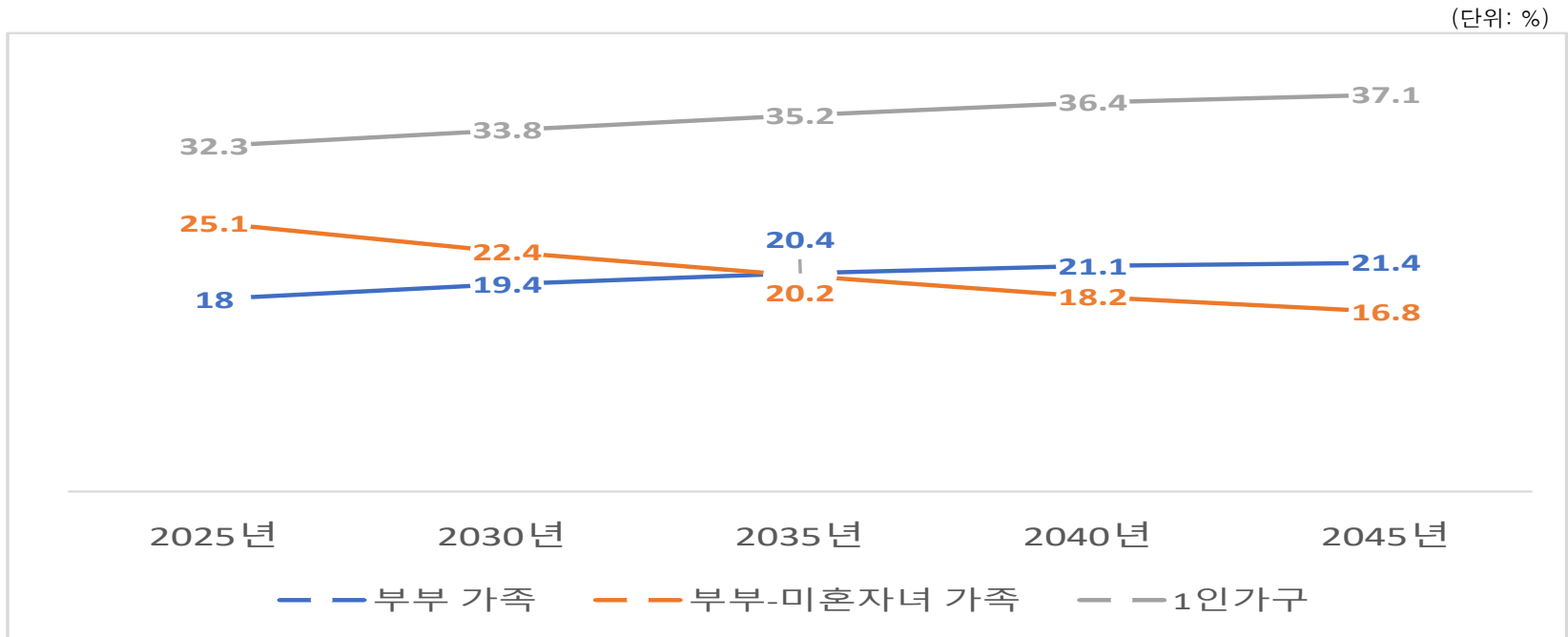
| 구분 | 1인가구 | 비친족가구 |
|------|-----------|---------|
| 2015 | 5,203,440 | 214,421 |
| 2016 | 5,397,615 | 269,444 |
| 2017 | 5,618,677 | 308,659 |
| 2018 | 5,848,594 | 340,367 |
| 2019 | 6,147,516 | 386,968 |
| 2020 | 6,643,354 | 423,459 |

자료: KOSIS 홈페이지. 가구주의 성·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가족 유형별 추계(2025~2045년)

- 한국의 가족은 지속적인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됨
 - ✓ 가족 유형의 측면에서 부부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감소 등



자료: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장래가구추계 > 가구의 연령/가구유형/가구원수별 추계가구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한부모가구 및 미혼모/부

- 한부모 가족 비율의 유지 및 증가
 - ✓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중 7% 정도 유지
 - ✓ 미혼모 수 증가

(단위: 천가구,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전체가구 | 19,838 | 20,168 | 20,500 | 20,891 | 21,485 |
| 한부모가구 | 1,540 | 1,533 | 1,539 | 1,529 | 1,533 |
| 한부모가구 비율 | 7.8 | 7.6 | 7.5 | 7.3 | 7.1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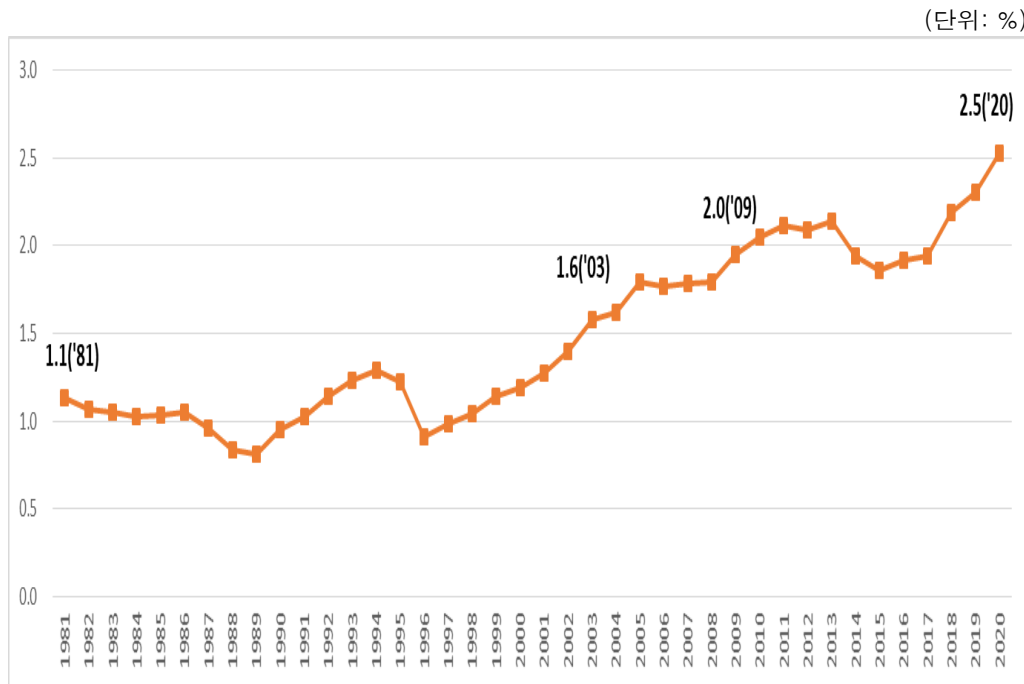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미혼모 | 19,838 | 20,168 | 20,500 | 20,891 | 21,485 |
| 미혼부 | 1,540 | 1,533 | 1,539 | 1,529 | 1,533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 가족 변동과 다양성

혼인외 출생

- 전체 출생에서 혼인관계(법적관계)가 아닌 혼인외 관계에서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 추세
 ✓ 1990년대 1% 수준 이내에서 꾸준히 상승, 2010년대 들어서 2% 수준
-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혼인제도나 결혼 및 가족 구성이 더욱 유연해 진다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상승 추세도 지속 가능



자료: KOSIS >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국가별 비혼 출산율 > (OECD, 2018)

(단위: %)

| 국가 | 혼인외 출생 비율 |
|----------------|-------------|
| OECD 평균 | 40.7 |
| 한국 | 2.2 |
| 프랑스 | 60.4 |
| 스웨덴 | 54.5 |
| 영국 | 48.2 |
| 미국 | 39.6 |
| 독일 | 33.9 |
| 일본 | 2.3 |

자료: OECD

3.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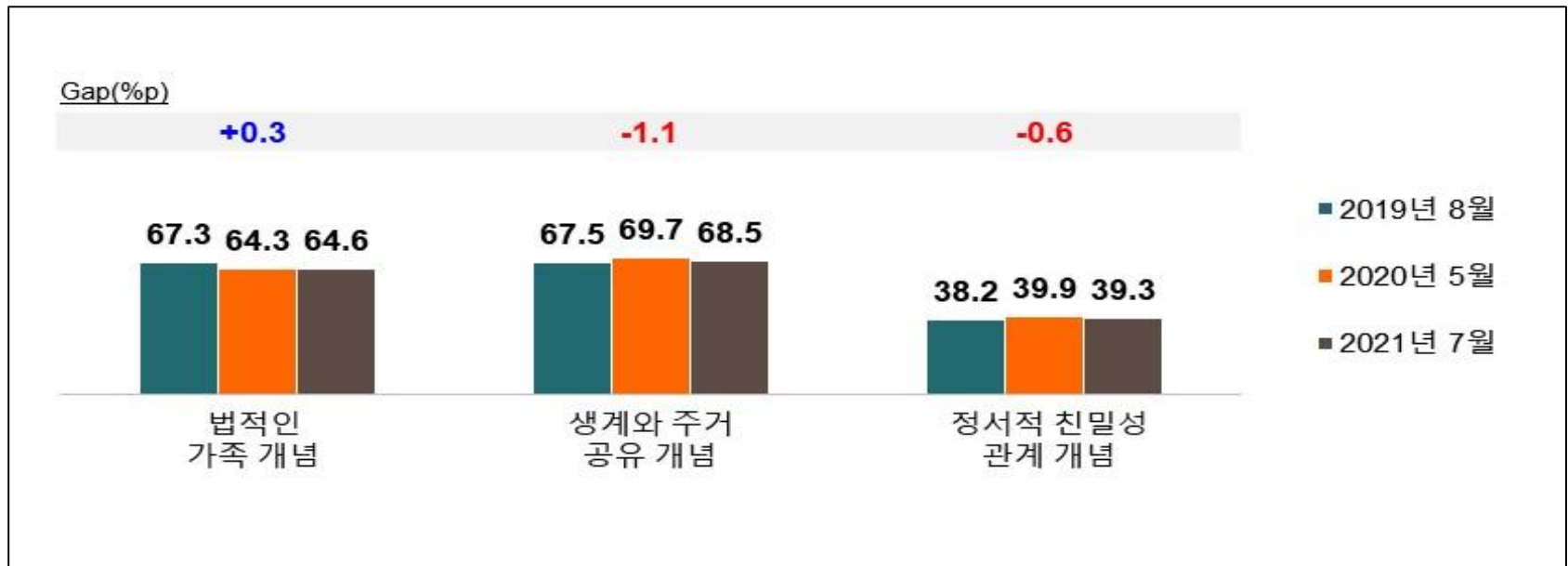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관념과 실천의 변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 ·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돌봄 · 양육 등 주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가족의 개념 확장
 - ❖ 법적으로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 ❖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 ❖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의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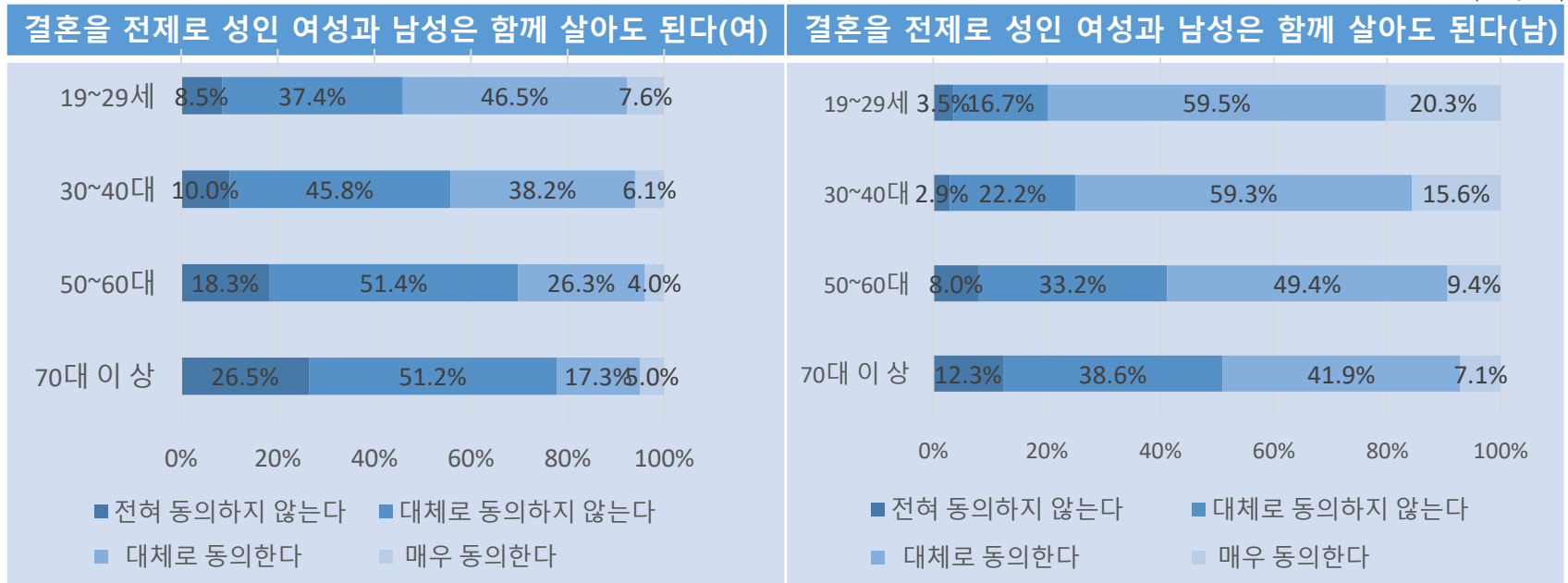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

-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전 연령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하고, 성별에 따라 과반을 차지하는 경향이 다름
 - ✓ (여성)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 과반
 - ✓ (남성)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동의하는 비율 과반
 - 남성 20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80%가량이 동의하고 그중 약 20%는 적극 동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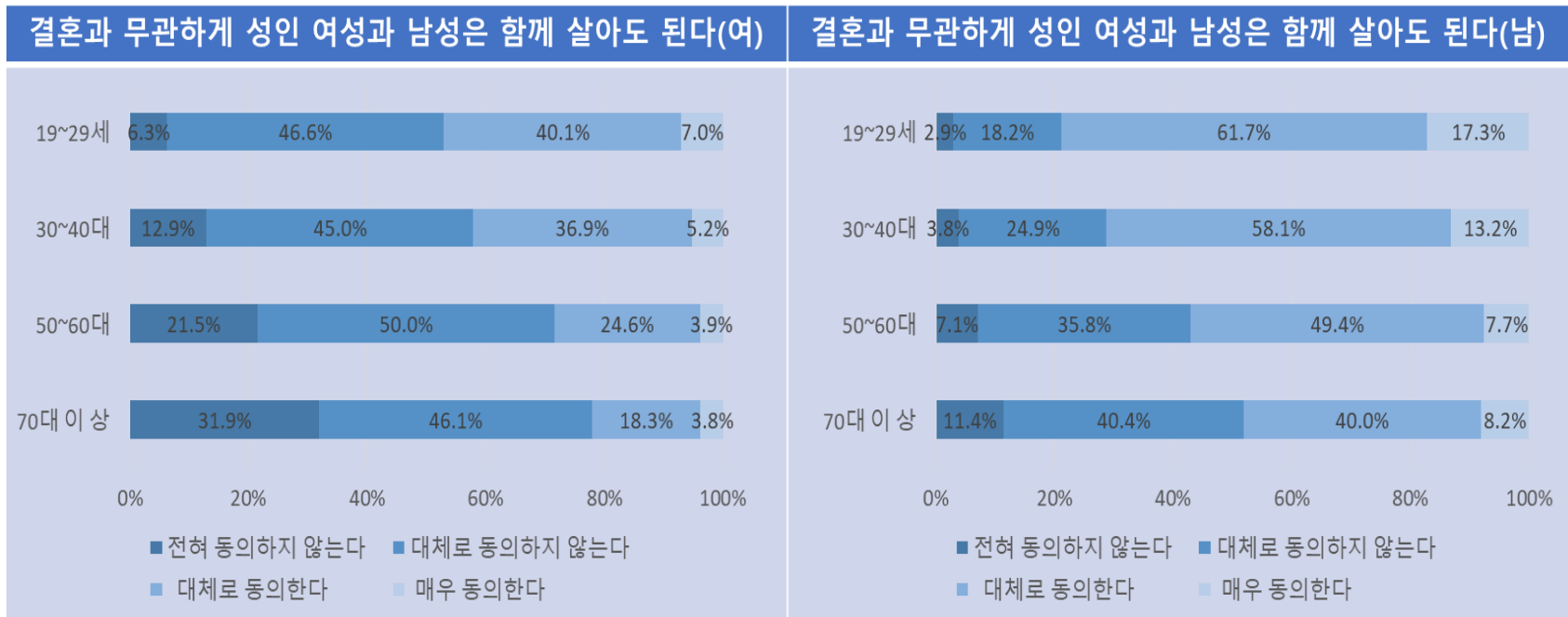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한 태도

-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인 이성 간의 동거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연령별 견해 분포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생각과 매우 유사
 - ✓ 여성 20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 절반 이하
- 결과적으로 여성은 모든 세대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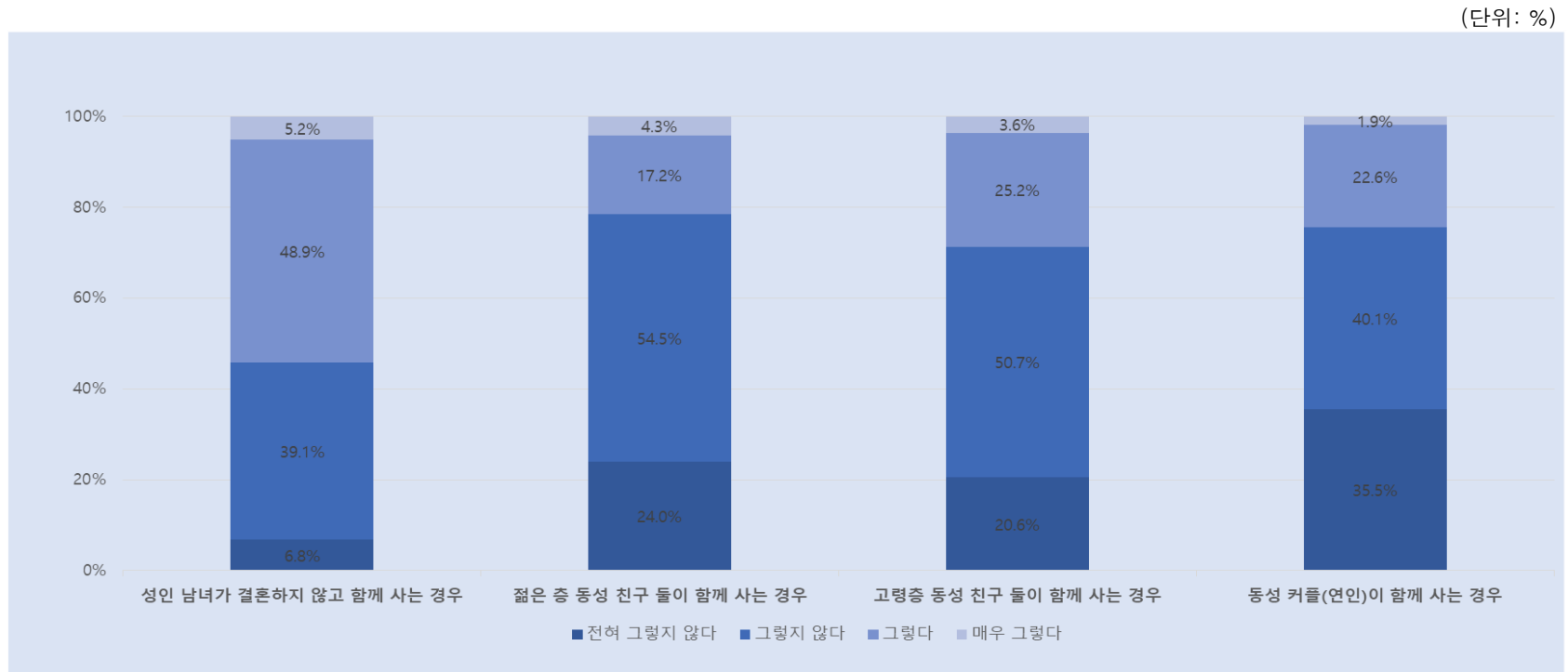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변수정, (2021.3.).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 다양한 결합에 대한 다양한 태도
 - ✓ 성인 남녀 사이의 동거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비율 절반 수준
 - ✓ 나머지 결합에 대해서는 가족 인정 비율 높지 않은 수준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태도

- 서구의 여러 국가는 함께 사는 동반자 등록 제도를 통해 혼인 관계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함
- 응급 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서로 돌봄 및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 등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생각에서 연령별 차이: 젊은 층에서 결혼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욕구 ↑
 ✓ 고령층 동성 결합에 대한 보호 제도 찬성: 48.9%
- 가족 유형과 관계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 지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남녀를 제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 반대 한다 | 찬성 한다 | | (명) | | | |
|--------|-------|-------|--------|------|--------|-------|---------|
| | | 매우 반대 | 반대하는 편 | | 찬성하는 편 | 매우 찬성 | |
| 전체 | 38.1 | 4.7 | 33.4 | 61.9 | 55.5 | 6.4 | (8,000) |
| 19~29세 | 27.0 | 3.0 | 24.0 | 73.0 | 63.3 | 9.7 | (1,360) |
| 30~39세 | 28.8 | 2.7 | 26.1 | 71.2 | 63.8 | 7.4 | (1,279) |
| 40~49세 | 37.0 | 4.1 | 32.9 | 63.0 | 56.1 | 6.9 | (1,533) |
| 50~59세 | 41.1 | 4.6 | 36.5 | 58.9 | 53.7 | 5.2 | (1,590) |
| 60~69세 | 48.2 | 6.1 | 42.1 | 51.8 | 47.2 | 4.6 | (1,204) |
| 70~79세 | 48.3 | 8.4 | 39.9 | 51.7 | 47.6 | 4.1 | (675) |
| 80세 이상 | 51.5 | 9.1 | 42.4 | 48.5 | 45.0 | 3.5 | (360) |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
|--|------------------------------------|--|
| 15.9 | 73.1 | 11.0 |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변수정. (2021.3.).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와 제도적 보호

다양한 유형을 '가족'으로 명명·인정 VS 실생활에서 보호

○ 가족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

- 가족이라고 명명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태도는 분리될 수 있음
- 서로를 돌보며 가족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음.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법적인 관계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친밀성을 가지고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생각이 약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욕구가 높음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보호 필요

- 현재 동거중인 천 여명이 응답한 동거 이유 중 1순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 2021)로 동거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동거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택하는 남녀 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족 다양성을 제대로 포괄할 수 없음. 결혼 중심에서 벗어나 생각하면 가족의 구성 방식은 매우 다양함
 - 한국에서 남남인 누군가와 '법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입양하는 것. 그러나, 혼인신고나 입양이 원하는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님
- 법적 테두리 내에 있지 않은 관계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음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다음의 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얼마나 가까운지]

- 여성,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6%
-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2%
-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20% 이하

(단위: %)

| | 이상적이지 않다 |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 | | 이상적이다 | 매우 이상적이다 | |
|---------------------------------------|----------|-------------|----------|-------|----------|------|
| | |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 | 약간 이상적이다 | | 매우 이상적이다 | |
|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사는 가족 | 37.0 | 3.3 | 33.7 | 63.0 | 48.7 | 14.3 |
|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 28.1 | 3.0 | 25.1 | 71.9 | 53.8 | 18.1 |
|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 65.0 | 6.7 | 58.3 | 35.0 | 31.4 | 3.5 |
|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 24.4 | 2.5 | 21.8 | 75.6 | 54.2 | 21.4 |
|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 81.0 | 9.3 | 71.7 | 19.0 | 17.7 | 1.3 |
|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 84.6 | 14.8 | 69.9 | 15.4 | 14.0 | 1.3 |
|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 61.5 | 6.7 | 54.8 | 38.5 | 35.8 | 2.7 |
|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 73.8 | 9.5 | 64.3 | 26.2 | 24.5 | 1.7 |
|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 52.5 | 4.5 | 48.0 | 47.5 | 44.1 | 3.4 |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한국 사회가 다음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편견 있다는 의견이 과반인 가족
- 편견 없다는 의견이 과반인 가족

(단위: %)

| | 편견이 없다 | 전혀 편견이 없다 | 별로 편견이 없다 | 편견이 있다 | 약간 편견이 있다 | 매우 편견이 있다 |
|--------------------------------|--------|-----------|-----------|--------|-----------|-----------|
| | | | | | | |
| 이혼이나 사별로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 35.6 | 5.2 | 30.4 | 64.4 | 57.2 | 7.1 |
| 이혼이나 사별로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 38.9 | 5.8 | 33.1 | 61.1 | 49.6 | 11.5 |
|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 23.3 | 2.7 | 20.6 | 76.7 | 46.9 | 29.8 |
| 미혼인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 22.5 | 2.6 | 19.9 | 77.5 | 48.9 | 28.6 |
|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 44.7 | 5.8 | 38.9 | 55.3 | 48.4 | 6.9 |
| 아이가 없는 가족 | 60.0 | 11.4 | 48.6 | 40.0 | 35.2 | 4.8 |
| 아이를 입양한 가족 | 57.2 | 11.5 | 45.7 | 42.8 | 38.1 | 4.7 |
|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 56.2 | 11.0 | 45.2 | 43.8 | 38.8 | 5.0 |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 55.3 | 10.9 | 44.4 | 44.7 | 39.9 | 4.8 |
|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가족 | 41.1 | 4.8 | 36.3 | 58.9 | 50.9 | 8.0 |
|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가족 | 18.8 | 2.2 | 16.6 | 81.2 | 44.0 | 37.2 |

주: 전체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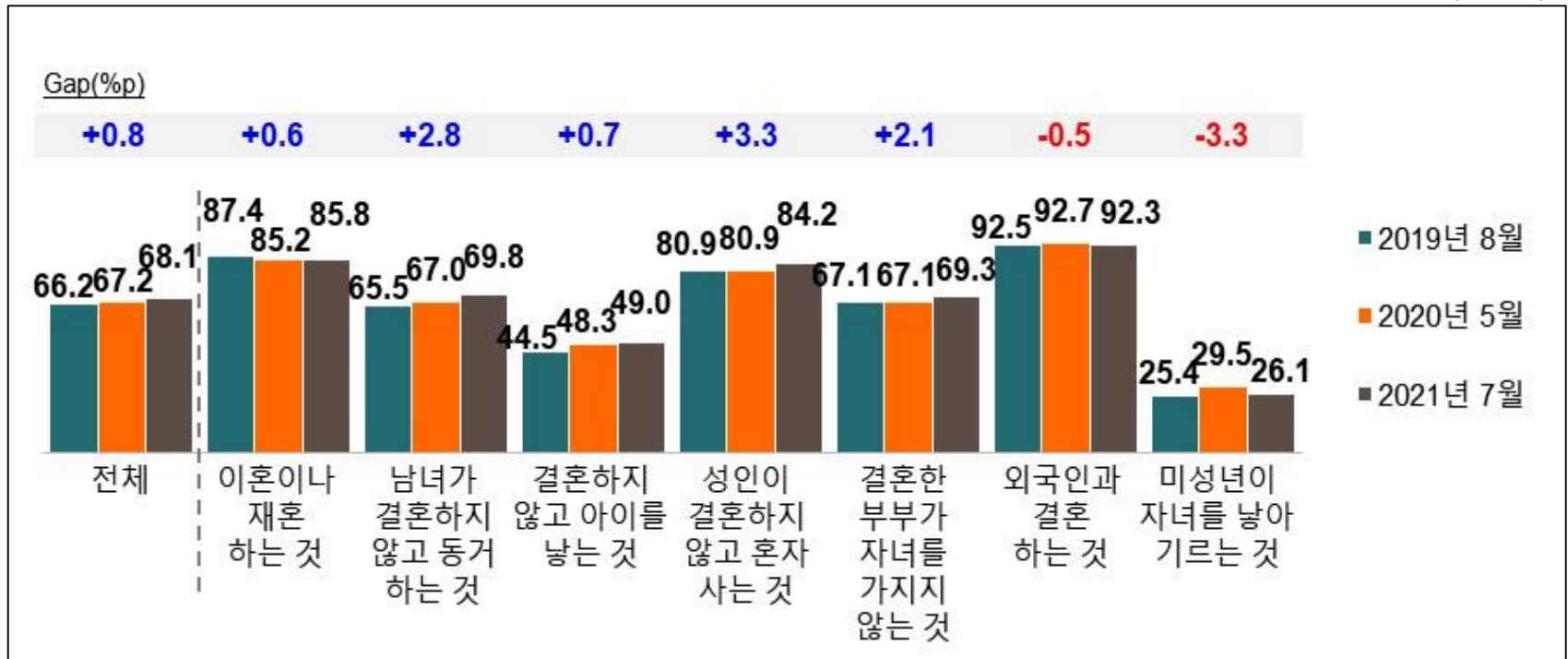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3. 가족 다양성 수용성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 출산과 혼인의 강한 연결고리가 가족 수용성 측면에서도 드러남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 ✓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3. 가족 다양성 수용과 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태도 차이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정도와 개인의 편견 정도에 대한 생각 차이
 - ✓ 응답자의 의도적인 도덕적 태도가 반영될 가능성있으나, 편견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사회 구성원의 편견을 줄이고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의 측면에서 긍정적임
 - ✓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느끼기에 우리 사회가 가진 제도나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한 결과라면, 개인은 변화와 수용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개인은 편견이 없는 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 및 정책 변화 등 사회가 이끄는 변화가 반영되어 차별이 감소하는 환경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단위: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편견 정도 | | | | |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개인 편견 정도 | | | | | | |
|------------------------|-------|-----------|-------|-------|------------------------|------------------|-------|-----------|-------|-------|--------|
| | 전혀 없다 | 별로 없는 편이다 | 약간 있다 | 매우 많다 | (명) | | 전혀 없다 | 별로 없는 편이다 | 약간 있다 | 매우 많다 | (명)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 2.0 | 7.5 | 40.1 | 50.4 | (1005) |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 8.6 | 9.9 | 45.3 | 36.3 | (1000)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 편견 | 24.0 | 31.0 | 39.2 | 5.9 | (1004) | 미혼모가족에 대한 개인 편견 | 28.8 | 29.2 | 36.6 | 5.3 | (1000) |

변수정 외(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변수정 외(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특성과 정책과제' 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 동거에 대한 사회의 태도 | | | | | 동거에 대한 개인의 태도 | | | | |
|----------------------|-------------|-------------|---------|---------|-----------------------------------|-------|-------|-------|-------|
| |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 약간 호의적임 | 매우 호의적임 | | 매우 반대 | 약간 반대 | 약간 찬성 | 매우 찬성 |
|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태도 | 44.6 | 43.7 | 10.2 | 1.6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 | 20.1 | 15.5 | 40.7 | 23.7 |
| | | | | | 남녀가 결혼과 상관없이 함께 살 수 있다 | 30.0 | 16.8 | 38.8 | 14.4 |

주: 일반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변수정 외(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에 관한 인식조사」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본계획 내 가족 다양성 과제

추진과제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4-1-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4-1-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4-1-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 정의를 가족의 다양성·유연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
-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 상 혼인·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
- 가족 형태 및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 방지
 - ※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사회적으로 실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현황 진단 및 정책수요 파악

[현재 추진 정책]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내 가족 다양성 과제

추진영역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 ◆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 ◆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1-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1-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 ◆ 가족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4. 가족 다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현재 추진 정책]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 발굴·정비
 -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개정
 -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

[새로운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 과제특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 추진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

향후 정책을 위해 생각해 볼 문제

결혼, 출산 대전제와 당위성의 약화

: 자신 스스로의 사고 결과 및 가치관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VS 사회적 관습이나 환경, 조건에 따른 선택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선택, 가족의 유동성/유연성

도덕적인 태도와 현실(진심) 사이 괴리

: 개인-사회 간극 최소화

실제 생활 및 삶과 제도 사이 괴리

: 빠른 변화 속 과도기

개인의 선택과 자유 존중

1.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한 제도 설계**
 - ✓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대한 이해
-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마련**
 - ✓ 가족 유형으로 인해 아동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검토
- **제도적으로 다양한 관계 포용**
 - ✓ 사회가 변화를 이끄는 법제도 마련(ex.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 ✓ 세분화 된 통계 구축(동거 가족: 통계상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에 포함 중)

개인의 선택과 자유 존중

1.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다양한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면밀한 이해**
 - ✓ 결혼의 변화, 생애 미혼(비혼), 개인 출산, 개인 양육 관련 연구
-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차별이나 사각지대 발굴**
 - ✓ 인권 및 권리, 공정성 차원에서의 연구
- **실제의 다양한 관계 사이 보호 필요 영역과 사회적 합의 수준 파악**
 - ✓ 파트너십, 생활돌봄 공동체/동반자 관계 연구
 - 가족 책임 수행 자격(상대방 수술이나 응급상황 등 의료 현장 및 사망시 보호자 역할 등)
 - 사회적 지원의 혜택 자격(유족 연금, 유산 상속, 국민건강보험, 연말 정산 등 제도적 혜택 등)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

2.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형성

- 가족 형태를 세분화 해 지원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족 유형이나 형태가 부각되지 않고도 포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 다양한 가족을 위기·취약 가족으로 보는 관점 탈피
- 다양성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 등
- 언론, 미디어, 작품 속 다양성 존중과 역할 강조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회

2. 다양성이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형성 방향 제안

- **제도와 가족 및 개인 생활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 연구**
 - ✓ 문화적 수용성, 인식 조사 연구 등
- **다양성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 마련 방안 연구**
 - ✓ 교육 접근 방법 및 내용 연구 등



감사합니다